

石洲 權輶의 社會詩 研究

文 範 斗

〈목 차〉

- | | |
|-------------------------|--------------------|
| I. 序 論 | 3. 諷刺의 아이러니 |
| II. 文學修辭의 認識態度和 그 活用 樣相 | III. 政治現實에 대한 批判意識 |
| 1. 文學修辭의 認識態度和 比·興 | IV. 百姓의 實狀과 愛民精神 |
| 2. 寓意의 談話樣式 | V. 結 論 |

I. 序 論

石洲 權輶(1569~1612)의 문학은 최근 들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의 不羈의 生涯와 詩禍로 인한 최후는 作家論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개성이 두드러진 漢詩를 비롯하여,¹⁾ 그의 文體的 소양과 方外人으로의 志向意志를 보여주는 傳作品,²⁾ 그리고 애정소설인

- 1) 石洲의 漢詩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허권수, 〈권필한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82), 蔡龍福, 〈石洲漢詩研究〉, 《伏賢漢文學》 第2輯(伏賢漢文學研究會, 1983), 成範重, 〈石洲權輶의 漢詩考察〉, 《울산어문논집》 5집(蔚山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89), 鄭珉, 〈石洲詩의 두 모습〉, 《韓國學論集》 第8輯(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5), 鄭珉, 〈石洲權輶의 雜體詩 研究〉, 《漢陽語文研究》 第4輯(漢陽語文研究會, 1986)
- 2) 석주의 傳에 대한 논의로는 金昌龍의 〈酒肆丈人傳에 나타난 邵康節배격의 意義〉(《한성어문학》 제2집,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郭素傳研究〉(《동박학지》 37·38합병호, 1983)와 필자의 拙稿〈權輶의 酒肆丈人傳 研究〉(《語文學》52, 韓國語文學研究會, 1991)등을 들 수 있다.

〈周生傳〉³⁾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작품들은 범상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石洲文學에 대한 기왕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특히 社會的 現實을 형상화하고 있는 漢詩作品—즉 社會詩—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의 문학은 특히 그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학적 표현양상에서 가장 뚜렷한 個性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논의의 의의가 찾아질 것이다.

석주의 사회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을 표현하는 데 동원된 文學修辭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석주시에 나타난 그 自在한 修辭的 技巧에 착안한 논의가 있었다.⁴⁾ 그러나 아직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를 십분 참고하면서 논의가 미흡했거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補完, 再論하면서 總體的 理解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어서 사회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시를 素材別로 나누어서 이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以上을 통해서 석주 사회시의 진면목이 상당부분 드러나리라고 본다.

II. 文學修辭의 認識態도와 그 活用樣相

본 항에서는 石洲가 사회현실을 詩로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그 표현의 妙를 살리기 위한 文學修辭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실제 활용의 양상을

3) 〈周生傳〉에 대한 연구로는 蘇在英의 〈石洲權譯小論〉(《崇田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2號, 1976), 金一烈의 〈周生傳小考〉(《語文論叢》11호, 慶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7), 김재수의 〈주생전연구〉(《한국언어문학》 v.21한국언어문학회, 1982)와 필자의 줄고〈周生傳 研究〉(《嶺南語文學》 第23輯, 嶺南語文學會, 1993)를 들 수 있다.

4) 李敏弘, 〈石洲詩의 品格研究〉, 《韓國漢文學研究》 第9・10合輯(韓國漢文學研究會, 1987), 鄭珉, 〈石洲諷刺詩의 特殊語法〉, 《韓國漢文學研究》 第14輯(韓國漢文學會, 1992)

살펴보고자 한다. 詩的 修辭는 특별히 社會詩가 아니더라도 두루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석주는 특별히 이 방면의 시에서 個性的이고 多様な 기교를 동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석주가 전통적 수사양식인 比, 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부터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그의 社會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寓意의 談話樣式과 諷刺的 아이러니의 활용양상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文學修辭의 認識態度和 比·興

任叔英이 殿策에 미친 말을 많이 하였지마는 臣이 이 詩를 쓴 큰 뜻은 좋은 경치가 이와 같다면 사람마다 뜻을 얻어 행하는 것이온저, 叔英이 布衣로 어찌서 이같은 危言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옛 시인들은 興에 부쳐 諷諫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로 臣이 이것을 본받아서 행하여 숙영이 포의로서도 이같은 말을 하였으나 朝廷에서는 直言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諸公을 規諷하여 힘쓰는 바가 있도록 바란 것입니다.

‘宮柳’二字는 원래 王元之의 殿試詩에 있는 ‘宮柳低垂三月煙’의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시를 보는 자가 시 중에 柳字가 있기 때문에 外戚을 가리켜 배척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 臣의 본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任叔英殿策 多發狂言 臣作此詩大意 好景如此 人人得意而行 叔英以布衣何爲如此危言乎 大抵古之詩人 有托興規諷之事 故臣欲倣此謂之 以爲叔英以布衣敢言如此 以朝廷無有直言者 故作此詩 規諷諸公 冀有所勉勵矣 宮柳二字 初取王元之殿試詩 宮柳低垂三月煙之句 而見詩者 以詩中柳字 故直謂指斥戚里云 臣本情則不然)⁵⁾

위의 글은 石洲가 〈宮柳詩〉로 인해 拿囚되어 光海君에게 親鞫을 받는 자리에서 직접 한 말이다. 이 중 특히 ‘托興規諷’이란 용어에 대해서

5)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四年 壬子條

여러 논자들의 주목이 있었다. 그 의미대로 보면 ① 옛 시인이 해 온대로 ② 興에 부쳐서 ③ 여러 선비들이 힘쓰는 바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때 ③은 시의 社會功利的 역할을 나타낸 것으로, ②는 修辭的技巧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용어에 처음 착안했던 李敏弘 教授는 托興規諷의 品格이 溫柔敦厚, 沖澹蕭散, 物外閑寂의 品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시로써 현실의 비리를 고발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⁶⁾

鄭珉 教授는 위의 이민홍 교수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탁흥규풍의 ‘興’을 詩의 三緯인 賦, 比, 興의 興에다 대응시켰다.⁷⁾ 그래서 托興은 필연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물에 빚되어 현실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托興規諷은 석주가 현실을 시로써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그를 통한 사회공리적 효과를 드러내는 수사적 기교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때의 興을 三緯의 하나로 본다면, 이 범주에 드는 수사적 특징을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의 시적 수사가 이 하나로만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다른 형태의 수사적 기교와 그 범주에 드는 작품까지 전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우선 ‘賦’는 대개 直敍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賦는 鋪(펼침)이다. 文彩를 鋪陳하여 사물을 體現하고 뜻을 措寫한 것이다.’⁸⁾라고 하였고 鍾嶸은《詩品》에서 ‘그 사물을 곧 바로 써서 말에 부쳐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 賦이다.’⁹⁾라고

6) 李敏弘, 위의 책, p. 7

7) 鄭珉, 〈石洲權輿의 詩觀과 詩精神〉, 《韓國漢文學과 儒敎精神》(安東漢文學會, 1991), p. 289

8) ‘賦者鋪也 鋪采摛文 體物寫志也’(劉勰, 《文心雕龍》 詮賦 第八)

9) ‘直敍其書 寓信寫物 賦也’(鍾嶸, 《詩品》)

하였다.

그러나 比, 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결같지도 않고, 또 그 구분도 상당히 모호하다. 유협은 比를 附加시킨다(比者附也)고 풀고 ‘切類而指事’라 하여 비슷한 것으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興은 일으킨다(興者起也)고 풀고 ‘依微而擬義’라 하여 분명치 않은 것으로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比의 例로서 金錫을 明德에, 珪璋을 賢臣에 비유하는 것으로, 또 興의 例로서 <關雎>에서 雎鳩의 有別로 后妃의 德을 비유하는 것으로 들었다.¹⁰⁾ 유협의 이 구분을 두고 일반적으로 比를 直喻, 興을 隱喻 또는 象徵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명쾌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경우를 보듯 外物에 假托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작가의 본의를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鍾嶸이 比를 ‘因物喻志’라 한 것에 이르면¹¹⁾ 유협이 흥을 정의한 것과 개념상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白居易는 ‘莊子, 列子の 寓言과, 國風과 離騷의 比興은 별레나 새 등에 많이 가탁하여 뜻으로 삼았으니 고로 詩義는 關雎, 鵲巢에서 비롯되고 道說은 鯢, 鵬, 蜩, 鷦의 類를 앞세운 것이 그것이다.’¹²⁾고 하여 아예 比, 興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양자의 차이를 비교적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사람은 朱子이다.

比는 一物로써 一物을 비유하는 것으로 지시하는 일이 言外에 있다. 興은 彼一物을 빌어서 此事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 일은 항상 下句에 있다. 다만 比는 뜻이 비록 절실하다고 해도 도리어 찬박하고, 興은 뜻이 소활하나 그 맛이 유장하다.

(比是以一物比一物 而所指之事 常在言外 興是借彼一物 以引此事 以其事常在下句 但比意雖切而却淺 興意闊而味長)¹³⁾

10) 劉勰, 위의 책, 比興 第三六

11) 鍾嶸, 위의 책

12) 白居易, <禽蟲十二章>序

13) 朱熹, <詩綱領>

여기서도 一物으로써 다른 一物을 비유하는 것이나 彼物으로써 此事를 일으킨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 구분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比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작품 내에서 실현되지 않고 잠복되어 있는 데 반해, 興은 下句 즉 작품 내에서 의미가 실현되고 있다고 한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洪瑀欽教授가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比는 比喻詞(補助觀念)과 被比喻詞(元觀念)을 두어 비유사를 통해서 피비유사를 드러내게 한다고 하였다.¹⁴⁾ 대신 興은 ‘먼저 다른 사물을 노래함으로써 읊고자 하는 정감을 일어나게 한다’¹⁵⁾는 嵇哲의 견해를 토대로, 흡사 춤을 추기 위해 먼저 樂器를 演奏함과 같은 效果의 修辭技巧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⁶⁾

興法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시를 하나 보자.

關關雎鳩 在河之洲 구옥구옥 물수리는 강가 숲에서 울고
窈窕淑女 君子好逑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 《詩經》〈關雎〉의 첫 구는 〈毛傳〉과 〈集傳〉에서 모두 興이라 하였다. 첫 구에서 물수리가 암수 짝을 지어 노니는 것에서 둘째 구의 男女同樂의 의미를 비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단순히 후구의 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즉 홍이관 작자의 주관적인 聯想作用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어떤 비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¹⁷⁾ 설사 어떤 비유가 담겨 있다고 해도 그것은 後句에 종속되는 것이지 흥을 일으키는 첫 구가 별도의 알레고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14) 洪瑀欽, 《漢詩論》(嶺南大學校出版部, 1991), p.p. 238~249

15) ‘興者 先言他物 以引起所詠之辭也’

16) 洪瑀欽, 위의 책, p. 246

17) 金學主 譯著, 《(新完譯) 詩經》(明文堂, 1988), p. 36

이제 〈宮柳詩〉를 보자.

宮柳青青花亂飛 대궐의 버들 푸르니 꽃은 어지럽게 날고
滿城冠蓋媚春暉 온 성안 벼슬아치들 봄 기운에 아첨하네
朝家共賀昇平樂 조정에는 모두 태평성대 하례하는데
誰遣危言出布衣 누가 위언을 포의에서 나오게 하였는가.¹⁸⁾

석주는 ‘興에 기탁하여 풍간했다’고 했으니 문제가 된 첫 구는 興이 된다. 석주는 이 첫 구를 王元之의 殿試詩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즉 버들이 늘어진 좋은 경치를 보고 뜻을 일으켜 後句를 지은 것이지 첫 句 자체에 어떤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분명 그가 托興이라고 한 ‘興法’을 이용하여 지은 시가 된다. 다시 말하면 見詩者나 光海君이 ‘比法’에 의해 ‘宮柳’에 外戚을 指斥한 無君不道의 다른 뜻을 담지 않았느냐고 의심했을 때, 석주는 그것이 별 뜻이 없이 後句의 정을 일으키는 방편인 興法에 의해 지은 것이라 강변했던 것이다.

물론 석주는 첫 구를 단순히 흥으로 지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논자들의 일관된 견해처럼 그는 진작부터 ‘궁류’는 광해군의 외척 柳希奮 등을, ‘靑靑花亂飛’는 그들의 無斷不德한 발호를 빗대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석주는 이 시를 興法에 의해 지은 것이 아니라 比法으로 지은 것이 된다. 즉 석주는 比法에 의해 이 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刑杖을 면하기 위해 흥법에 의해 지었다고 강변한 것이다.¹⁹⁾ 이러한 것들은 석주가 比興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그의 사회시에 적극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18) 〈聞任茂叔削科〉, 《石洲集》 卷之七

19) 洪瑪欽 教授는 석주의 이 〈궁류시〉를 ‘比法’에 의한 수사로 이루어진 작품임을 진작 지적한 바 있다. 위의 책, P. 243

있다.

이민홍 교수가 '탁홍규풍'을 '社會美學的 詩意識'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 때의 興이 수사적 기교의 하나로 쓰여진 이상, 최소한 석주 사회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탁홍'을 어떤 외물에 기탁하여 비유적으로 원관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한 정민 교수의 견해는, 석주 사회시의 특징적인 수사적 기교 중의 하나를 摘示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실록》 인용문의 문맥을 놓친 결과를 빚었다. 따라서 비, 홍의 차이를 간과하게 되어 석주가 현실을 시로 형상화하는 데 동원한 다양한 수사적 기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실제의 석주의 시에는 賦, 比, 興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현실을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부패한 정치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문면에 드러내 놓고 비난하기도 하고(賦),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나 속성에 가탁해서 作意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興). 따라서 석주의 사회에 대한 풍자정신이 가장 강하게 노출되는 수사기교는 오히려 賦, 比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석주가 興法에 의한 수사적 기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미적 가치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형태의 표현양식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寓意의 談話樣式

앞에서 석주의 比, 興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실제적용의 양상을 〈궁류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比法은 넓은 의미로 보아 소위 寓意(allegory)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比法이나 寓意는 수사적 방법에 있어서 어느 일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우의가 그 운용의 양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해 보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의는 기본적으로

로 諷刺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고 하였다.²⁰⁾ 그래서 풍자에서 볼 수 있는 세밀한 묘사 및 세련된 시점을 우의의 이야기 양식과 내용에 결합시킨다면 풍부한 창작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²¹⁾

석주의 시에서의 寓意는 그 활용의 방법상 두가지 경우를 볼 수 있다. 하나는 寓話(fable)이고 다른 하나는 引喻(allusion)이다. 우의는 일반적으로 談話(narrative, 이야기)의 형태를 띤다. 우의가 주로 散文에 이용되는 것은 그 까닭이다.²²⁾ 그러나 시에 이용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석주의 諷刺的 社會詩에 동원된 뚜렷한 修辭上的 일 특징은 바로 이 寓意的 談話樣式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寓話는 寓意의 일반적 특징을 지니면서 주로 擬人化된 동물이나 식물을 등장시켜 인간세계에 대응되는 문제의식을 표현해 내게 된다. 이때 그 문제의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들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과 유사한 행위의 記述이 따르게 된다. 이 행위의 기술은 하나의 완결된 談話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시를 보자.

黃雀何翩翩 黃雀이 어디선가 날아와서는
寄巢枯葉枝 마른갈대 위에 둥지 틀었네
江天喟然風 강바람 매섭게 불어
葦折巢仍欹 갈대 꺾기고 둥지 기울다.
巢破不足惜 둥지 무너짐은 아깝지 않으나
卵破良可悲 알이 깨어짐은 절말 슬퍼라
雄雌飛且鳴 암수가 날아서 우지지매
日夕無所依 해는 저물어도 깃들 곳 없네

20) John Macqueen, 宋洛憲譯, 《알레고리》(서울大學校 出版部, 1981), p. 83

21) 위의 책, p. 84

22) 李起哲, 《詩學》(一志社, 1985), p. 56

君看彼黃雀 그대는 저 黃雀을 보았는가
 物理因可推 사물의 이치를 이로써 짐작하나니
 結巢豈不固 둥지 틈이 어찌 굳지 않으랴
 所托非其宜 그 지은 곳이 마땅치 않음일세²³⁾

위의 시는 우선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黃雀, 마른 갈대, 둥지, 바람, 알 등이 그것이다. 詩의 전반부는 황작이 마른 갈대 위에 둥지를 틀었으나 강바람을 맞아 그것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讀者는 작품의 후반부, 즉 ‘君看彼黃雀’에 이르게 되면 이 작품이 단순한 敍景이 아니라 寓意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럴 때 비로소 위에 사용된 여러 요소들의 의미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寓意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들 요소에 각각 대응되는 의미파악이 중요하다.²⁴⁾ 황작은 일단 士大夫文士로 볼 수가 있다. 이럴 때 둥지는 文士의 자기실현의 抱負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갈대는 그 포부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곳, 즉 정치현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른 갈대라 했으니 애초에 병들고 왜곡된 정치관을 想定케 한다. 바람은 정치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爭鬭이다. 알은 오랜 학업으로 이루어 내었던 개인적 성취이거나 仕路에 든 후의 立身の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는 단지 意味의 組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談話)를 만들어 내고 있다. 1~2구는 둥지를 트는 상황 즉, 文士가 정치에 入門하는 모습이다. 3~4구는 갈대가 꺾기어 둥지가 무너지는 상황 즉, 정치적 外風을 맞아 初志가 좌절

23) 〈感懷三首〉中 其二, 《石洲集》 卷之一

24) C. 카터콜웰, 《A Student Guide to Literature》, 이재호 등 譯(을유문화사, 1991), p. 94 참고로 콜웰이 제시한 우의의 네 가지 기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많은 의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각 요소는 한 의미, 오직 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셋째,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의미들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넷째, 그것은 추상적인 것(의미)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한다. (앞의 책, p. 93)

을 겪게 된다는 의미이고, 5~8구에서는 앞의 결과로 몸 둘 곳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에 동원된 각 요소들은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되어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는 데 기능하고 있다. 이런 談話形態는 文士가 정치현실에 뜻을 둔 후 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해를 입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작가가 위의 주제를 意味深層의 내용대로 기술하려 했다면 관념적 웅변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우화적 담화양식은 정치관의 不條理를 하나의 실제적인 예로써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 주제의식이 구체화되어 설득력있게 제시되게 하였다.

다음도 역시 위와 유사한 기법을 사용한 시이다.

種蘭盈九畹 난초를 이랑 가득 심으니
 雨露日芳菲 雨露맞아 날로 향기로우네
 坐冀枝葉茂 잎새가 무성하기를 기다려
 庶用充佩褱 노리개로 쓰이길 바라더니
 嚴霜昨夜下 어제 저녁 모진 서리내려
 百草條已腓 온갖 풀들이 홀연 시들었도다.
 杉蕢尙不免 삼나무, 대나무도 건달 수 없었는데
 況乃蕙芭微 하물며 가녀린 난초일까
 仰視日光 우러러 태양을 보니
 有淚霑我衣 눈물이 옷깃을 적시도다.
 豈從感時節 어찌 이때를 헛되이 상심하라
 君子有所思 군자는 생각되는 바가 있도다²⁵⁾

시의 전반부는 〈離騷〉에서 設意한 것이다. 역시 난초, 雨露, 잎새의

25) 〈感懷三首〉中 其三, 《石洲集》 卷之一

무성함, 노리개, 모진 서리, 풀, 삼나무, 대나무, 태양 등에 알레고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난초를 이랑에 심는 단계에서부터 서리를 맞아 시드는 상황이 역시 담화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1~4구는 선비가 뜻을 지니고 학업에 전념하는 상황이다. 5~8구는 그 初志가 모진 서리로 표현된 외적 상황을 맞아 여지없이 꺾여졌음을 나타낸다. 위의 시는 君恩을 입어 재능을 키워 王佐의 덕업을 쌓으려 했으나 예상치 못했던 풍파로 좌절하게 된다는 내용의 줄거리를 갖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 우화적 담화양식은 動物이나 植物의 생태나 속성을 빌어 다른 外的 狀況 즉 바람이나 서리같은 의도된 요소를 결구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이루게 함으로써 작가의 풍자의도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다음 引喻의 경우를 보자. 인유는 과거의 경험의 權威를 현재사건에 갖다 붙이고, 그래서 시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수사방법이다.²⁶⁾ 이 때 과거와 현재 사이의 聯想效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유된 사건은 독자의 일반적인 경험의 수위에서 차용되어야 할 것이다. 인유의 방법은 漢詩에서 즐겨 이용되는 수사법이나, 석주의 경우 몇 구 이내의 集約的提示에 그치지 않고 寓意의 성격을 띠고 談話形態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長安甲第橫青雲	장안의 높은 집 푸른 구름에 이어지고
高樓絲管遙相聞	높은 누각 위 음악소리 멀리서도 들린다.
漢代丞相七寶車	漢나라 승상이 타던 七寶車가
轉轉夜入金張家	밤에 털적이며 勢道家로 들어가고
珊瑚綺食天廚來	대궐에서 나오는 고운 그릇 좋은 음식

26) 劉若愚, 《中國詩學》, 李章佑 譯(汎學社, 1979), p.186

宮中美女顏如花 궁중의 미녀 얼굴은 꽃과 같네
 燭影煒煌清漏遲 燭 그림자 밝은데 새벽은 더더
 尊前密語無人知 잔 앞 두고 나누는 밀담 아무도 몰라라
 門巷斜連夾城路 문 앞 골목은 비스듬히 성문길 끼고
 平明冠蓋多如霧 새벽에는 안개처럼 쏟아지는 高官들
 機關欸翕令人迷 기계는 마음에 맞아 사람을 미혹케 하고
 白日鼻息吹虹霓 한 낮의 콧김이 무지개를 불어낸다.
 一朝人事忽顛倒 하루아침에 사람의 일이 홀연 바뀌어
 玉臺金館生春草 玉臺, 金館에는 봄풀이 돋아.
 寄語世上夸奪子 세상 아첨꾼에게 말하노니
 古來浮榮不足恃 옛날부터 뜬 영화 믿을 수 없는 것
 只今人憐賈太傅 지금 사람들은 賈誼를 불쌍히 여기나
 紛紛絳灌誰比數 많고 많은 周勃과 灌嬰를 누가 쳐 주나²⁷⁾

위에서 인용된 사건은 마지막 두 句가 의미하고 있듯이 賈誼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中國 漢代의 정치적 상황이다. 가의는 孝文帝 때의 大夫로 〈弔屈原賦〉를 남기기도 한 政論家이다. 拔群의 재능으로 博士로 入朝한 후 일년만에 太中大夫에 올랐으나 이를 시기한 絳侯(周勃), 灌嬰, 東陽侯(張相如) 등의 謀害를 입어 長沙王의 太夫로 左遷되었다.²⁸⁾ 그러나 시 전반부의 상황은 오히려 後漢 末 外戚 또는 宦官의 弄權으로 儒生들의 被禍가 이어졌던 전반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위의 시에 제시된 漢代의 정치상황은 실제로는 당시 조선조에서 벌어졌던 권력암투와 상대방에 대한 모해, 비방과 이로써 권력을 잡은 쪽의 횡포를 우의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우의의 내막으로는

27) 〈古長安行〉《石洲集》卷之二

28) 司馬遷, 《史記》屈原賈誼列傳

〈燃藜室記述〉의 해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즉 이 시는 선조 때의 영의정 李山海와 金嬪의 오라비 金公諒이 결탁하여 좌의정 鄭澈을 몰아낸 辛卯時事를 풍자한 것이라고 했다.²⁹⁾

위의 시의 특징은 인유된 사건의 우의적 의도가 역시 담화형태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인유의 경우라면 마지막 두 句만으로도 인유의 효과는 충족된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는 弄權의 시초부터 몰락의 결과까지 이야기의 전개형태를 취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있게 작가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었다.

有客別東魯 한 사람이 東魯땅을 떠나
求名入長安 벼슬구하러 長安에 갔다.
長安多甲第 장안에는 좋은 집이 많고
歌舞靑雲端 하늘 높이 올리는 가무소리
衣冠散廣陌 관리들은 넓은 길로 흩어져 가고
劒佩聲珊珊 劒佩 찬 소리가 찼렁이네
忽見車騎來 문득 마차가 오는 것을 보니
白日輝金鞍 햇빛에 금빛안장 번쩍인다.
認是平生親 옛 친구임을 알아채고
欲進仍盤桓 나아가려다 머뭇머뭇
願一道姓名 이름이나 말하고 싶었지만
氣象不可干 높은 기상 범할 수 없었더라
日暮歸邸舍 해지자 여관으로 돌아와
撫枕涕沆瀾 베개 이루만지며 눈물 흘렸다.
傳語後來人 뒷 사람에게 말하노니
此路誠獨難 이 길만은 정말로 어려운 길이라³⁰⁾

29)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14, 〈辛卯時事〉

30) 〈古意八首〉, 《石洲集》 卷之一

위의 시도 역시 인유를 통한 담화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詩題를 ‘古意’라고 하여 東魯의 客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典故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중국의 이야기이지마는 마지막 句를 통해서 우의의 효과를 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동노의 인물이 겪은 아주 일상적인 예를 기술하여 배타적인 정치권력의 속성을 보여주 고자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의의 담화양식이라는 수사적 기교를 통해 석주가 얻으려고 했던 효과는 다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특수한 例話를 들어 조선조의 정치적 현실을 보다 구체화시켜 보여줄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소위 類似性的의 원리에 따른 聯想效果를 기대하게 된다.

둘째, 이 연상효과는 모순된 현실문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한 어조로 풍자하게 됨으로써 예상되는 반발을 事前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셋째, 表現의 豊富性和 擴張性이다. 완결된 담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동원되는 폭넓은 역사적 지식과 짜임새있는 구성은 독자들에게 명쾌하고 설득력있게 작가의 의도가 전달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3. 諷刺的 아이러니

아이러니(irony)는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의미된 것(what is meant)사이의 緊張 또는 相衡의 효과를 노리는 수사법이다.³¹⁾ 석주의 시에서는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아이러니의 방법도 널리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시를 통하여 석주가 아이러니의 기법

31) C. 카터 콜웰, 위의 책, p. 54

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살펴보기로 하자.

忠州美石如琉璃	忠州의 美石은 유리와 같으니
千人剗出萬牛移	많은 사람이 깎아 많은 소로 실어 나른다.
爲間移石向何處	문노니, 돌을 옮겨 어디로 가져 가는가?
去作勢家神道碑	權勢家の 神道碑를 만든다오
神道之碑誰所銘	신도비에는 누구를 새기는가?
筆力倔強文法奇	필력도 굳세고 문장도 기이하네
皆言此公在世日	다 말하기를 “이 분이 세상에 있을 때
天姿學業超等夷	천품과 학업은 동배에 뛰어나고
事君忠且直	임금을 충성과 의리로 섬겼으며
居家孝且慈	집에 있으면 효성스럽고 자애로왔소.
門前絕賄賂	문 앞에 뇌물을 끊어
庫裏無財資	창고 안에는 재물이 없고
言能爲世法	말은 능히 세상의 법도가 되었으며
行足爲人師	행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었소
平生進退間	벼슬에 있을 때나 물러났을 때나
無一不合宜	하나도 합당치 않음이 없었으니
所以垂顯刻	그래서 이를 전하고 나타내어 돌에 새겨
永求無磷緇	영원히 묻히지 않기를 바란 것이요.”
此語信不信	이 말을 믿건 안 믿건
他人知不知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遂令忠州山土石	드디어 충주산 위의 돌로 하여금
日鎖月鑠令無遺	날로 깎기고 달로 깎기어 남은 것이 없게 하네
天生頑物幸無口	하늘이 頑物을 내매 입이 없이 하기 망정이지
使石有口應有辭	입을 있게 했다면 마땅히 할말이 있으리라. ³²⁾

32) 〈忠州石〉, 《石洲集》 卷之二

위의 시는 作中話者와 忠州의 美石을 나르는 人夫와의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위 劇的 아이러니이다. 이 극적 아이러니는 A와 B가 B만이 모르고 있는 C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효과는 고양된다고 하였다.³³⁾

여기서는 B의 역할을 하는 인부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神道碑에 새겨질 권세가에 대해서 극도의 讚辭를 늘어 놓는다. 그러나 화자는 끝까지 여기에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단지 ‘此語信不信’ 이하의 말로 완곡히 표현함으로써 전체적 作意를 아이러니로 이끌고 있다. 아이러니는 ‘채함’ 또는 ‘가장’(simulation)과 ‘아닌 채함’(dissimulation) 즉 아닌 것을 그런 척 하는 것과 그런 것을 아닌 척 하는 데서 출발 한다.³⁴⁾

독자는 인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이러니가 이 작품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작가는 능청스럽게조차 하다고 할 정도로 인부를 가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까지 다 읽고 난 후에는 신랄한 풍자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인부의 이야기가 작자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 표현되어 있다고 느끼는 때에 이르러서야 이 이야기의 풍자적 아이러니의 목적이 달성되게 되는 것이다. 석주는 위의 시에서 권세가의 부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러니를 통한 反轉으로 해서 독자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위의 시에서 사용된 아이러니기법을 일반적으로 狀況의 아이러니라고 한다. 이와 함께 석주는 語調의 아이러니의 기법도 풍자목적을 위해 종종 사용하고 있다. 이 어조의 아이러니는 일종의 ‘비꼼’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³⁵⁾

33) P. C. Muecke, 《아이러니》, 文祥得 譯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0), p. 105

34) 위의 책, p. 46

男兒行世別有路 남아의 처세에는 다른 길이 있으니
莫把陳編從自苦 헌 책을 부여잡고 헛된 고생 말아라³⁶⁾

不是堯與舜 堯임금과舜임금도 옳다하지 않고
不非桀與紂 桀王과 紂王도 그르다 하지 않는다.
不悲貧賤夭 가난하고 천하고 일찍 죽음도 슬퍼하지 않고
不喜富貴壽 부하고 귀하고 오래 삶도 기뻐하지 않는다.³⁷⁾

첫번째 시는 〈君不見對酒走筆〉의 일부이다. 男兒가 힘써 학문을 익히려 뜻을 펼치는 것은 조선조 문사의 일상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고생이라 한 것은 그 자체를 진실로 표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재기넘치는 자들이 그 정당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社會的 不條理로, 이것은 表現과 意味 사이의 相衡의 효과를 기대한 표현방법이다. 두 번째의 시도 의미구조가 倒置되어 있다. 역시 모든 가치가 전도된 정치적 실상을 冷笑의으로 나타내고자 한 의도를 독자들은 감지해 내게 된다.

이상에서 석주가 풍자의 목적으로 사용한 아이러니적 기법을 두 가지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修辭를 즐겨한 것은 그의 사회를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겠지마는 역시 독특하고 개성적인 시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석주의 詩的 天才性은 이러한 수사적 기교를 다양하고 또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의도하고자 한 주제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35) 석주시에 보이는 이 語調의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鄭珉教授의 논고(〈石洲諷刺詩의 特殊 語法〉, 《韓國漢文學研究》 第14輯, 韓國漢文學會, 1992)가 자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단지 간단한 예만 제시한다. 鄭教授는 역시 석주풍자시의 독특한 표현어구에 주목하여 이를 二重的 言語使用, 矛盾語法, 非適合陳述, 類以語反復, 用事, 래로디의 향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6) 〈君不見對酒走筆〉, 《石洲集》 卷之二

37) 〈詩酒歌〉, 《石洲集》 卷之二

Ⅲ. 政治現實에 대한 批判意識

石洲의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태도는 다음〈從政圖說〉을 통해서 대강 살펴 볼 수 있다. 從政圖놀이는 나무를 깎아 官班爵秩을 나열하여 昇降黜陟의 법을 불허 놀이하는데, 서열의 貴賤에 따라 건 돈을 결정 짓는 놀이이다.

…丙申年에 내가 湖南에 머물 때에 하루는 우연히 들판의 정자로 걸어가니 여러 촌이 이 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곁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니 올라서 貴하게 된 자도 있고, 내려서 賤하게 된 자도 있었다. 혹은 처음에 낮아졌다가 나중에 오르는 자도 있고 혹은 처음에 올랐다가 나중에 낮아지는 자도 있었다. 역시 그 사이에도 運數가 있는 게 아닌가 하였다. 대개 올라서 貴하게 된 자도 반드시 다 현명한 것은 아니고, 내려서 천하게 된 자도 반드시 다 우둔하지는 않았다. 처음에 낮아졌다가 나중에 오른 자가 어찌 전에는 拙하고 나중에 巧妙해지며, 처음에 올랐다가 나중에 낮아지는 자가 어찌 전에는 교묘했다가 나중에 졸해지겠는가. 그 昇降黜陟이 되는 바탕은 이미 賢愚巧拙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즉 단지 거기에 있고 없음을 점칠 따름이다. 오호라, 내 지금의 정치에 따르는 자를 보니 어찌 이 놀이와 같지 않겠는가. 혹은 偶然이 아니라 그 機巧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노라.

(丙申年 客于湖南 一日偶步出野亭 有數客方設此戲 余從旁而諦視之 有升而貴者 有降而賤者 或始黜而終陟 或始陟而終黜 疑亦有數存焉於其間也 夫升而貴者 未必皆賢 降而賤者 未必皆愚 始黜而終陟者 豈前拙而後巧 始陟而終黜者 豈前巧而後拙 其所以升降黜陟者 既不可以賢愚巧拙論 則但卜其偶不偶耳 嗚呼 余觀夫今之從政者 其有不類乎是圖者耶 或曰非偶也 其機巧之智有致之此說 余未信之)³⁸⁾

38) 〈從政圖說〉, 《石洲外集》 卷之一

정치현실을 종정도놀이(宗正道놀이)에 비유한 재미있는 내용의 글이다. 官班爵秩의 昇降黜陟이 놀이꾼의 機巧之智에 관계없이 자기 운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에서 이 글이 朋黨政治의 폐해와 관련시켜 논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黨爭은 제한된 관직에 늘어난 文科合格者로 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벌어진 기득권 쟁탈에도 일 원인이 있었다. 혼미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정쟁 속에서 다행히 同門의 領袖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一夫에 千夫가 따르는 형색을 이루었고, 이와는 반대쪽은 관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즉 힘써 학문을 닦았을 때 그 그릇에 합당하게 大小官職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自黨의 得勢與否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자당의 득세도 종횡으로 얽힌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서 그 향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당파싸움의 초기 銓郎職을 둘러싼 金孝元과 沈義謙의 다툼에서부터, 癸未三竄³⁹⁾과 己丑獄死, 王世子冊立事件 등에서 보듯이 정국은 안개 속 같은 실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주는 이런 속에서 濟世安民의 保國心으로 仕路에 든 국가적 棟梁之才들이 한미한 外職으로 전전하거나, 遠方으로 謫配되어 분한에 찬 삶을 마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석주가 <종정도설>에서 풍자하려고 한 것은, 비록 ‘偶然’이라는 우회적 용어를 골라 썼으나 재능있는 자가 영달하고, 우매한 자가 배척되어야 하는 국가경영의 대사업이 한갓 놀이마당처럼 정치적 外風에 농락되는 현실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君不見思菴朴政丞 그대는 모르는가, 思菴 朴淳이
冷落如山僧 치량하기가 山僧과 같았음을

39) 東人인 宋應軫, 許筠, 朴謹元이 西人에 참여한 李珣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된 사건.

君不見松江鄭相國	그대는 모르는가, 松江 鄭澈이
百年行已能清直	일생을 청직하게 지내왔음을
豈但寒餓因一生	어찌하여 기한에 일생을 피곤케 하여
復令子孫無地耕	자식에게 땅조차 물려주지 못하였는가
環碧堂虛成草采	環碧堂은 텅 비어 잡풀만 돋았고
拜鵲窩破空蒼苔	拜鵲窩는 무너져 이끼만 덮혔네
洛陽車馬何喧喧	서울의 수레소리 요란하게
紆青拖紫皆賢才	高官大爵들은 재주를 다투네
爭將毀鄭作階梯	鄭相國 헐뜯어 벼슬자리 오르고
誰肯譽朴生禍胎	누가 朴丞相을 두둔하여 양화를 만들었던가
朱門峨峨臨九衢	귀족의 집 높고 높아 서울거리에 늘어서고
一夫顧盼千夫趨	한 사람이 눈짓하면 천 사람이 따른다.
新來寶玉山岳崩	보옥을 파내와 산악이 무너지고
灑出明珠滄海枯	구슬을 건져내니 창해가 마른다.
雖傳仍雲億萬歲	이를 비록 억만세에 전하여도
金帛瀾用無時無	보배는 없어질 때가 없네
君不見體素李翰林	그대는 모르는가, 體素 李春英이
半世黃卷爲書淫	반생을 글 읽어 모든 책을 통달했음을
君不見五山車祕書	그대는 모르는가, 五山 車天輅가
欲將詞賦凌相如	詞賦를 지으매 司馬相如 능가함을
文章益富家益貧	문장은 깊을수록 집은 더욱 가난하고
仕路狹窄難容身	벼슬길 좁아서 몸둘 곳 없네
生者飄零越路傍	산 자는 영락하여 떠돌이 신세
死者埋沒隨塵埃	죽은 자는 묻히어 흙먼지만 따르도나
男兒行世別有路	남아의 처세에는 다른 길이 있으니
莫把陳篇從自苦	현책을 부여잡고 헛된 고생 말이라
翰苑清深玉堂高	翰苑은 깊고 玉堂은 높아
其中學士多英豪	그 중에 학사들은 재주 많고 호방하다.

花牋彩筆恣揮洒	花牋彩筆 마음대로 휘두르니
觀者焉能辨眞假	보는 자가 어찌 참과 거짓을 분변하랴
人生稱意得如此	인생의 뜻이 이와 같으니
班揚燕許爲何者	글은 읽어 무엇을 하려는가
爲酌一杯勸少年	잔들어 소년에게 권하노니
榮悴貴賤寧在天	榮悴貴賤이 어찌 하늘에 있겠는가
故知通塞皆自由	막히고 뚫림은 자기 하기 나름이니
以彼易此如誰賢	그것으로 이걸 바꾼들 누가 현명한 줄 알리오
不如是非都兩忘	모르겠다, 시비는 모두 잊고
日日醉倒春風前	매일 취하여 봄바람에 누우리라. ⁴⁰⁾

위의 시는 앞 부분에서 思菴 朴淳과 松江 鄭澈을 두고 벌여졌던 黨禍의 진상을 완곡하지마는 절실하게 드러낸다. 思菴은 東西分黨의 조짐이 있자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金晬와 李滌을 중심으로 한 동인세력이 그를 서인의 영수로 몰아 黨籍으로 얹어 공격하였다. 결국 동인이 득세하자 致仕하고 산곡에 묻혀 고적한 말년을 마쳤다. 또 建儲問題를 둘러싸고 벌여졌던 동, 서인의 반목은 정철을 外職으로 몰아내고 대신 동인이 요직을 독점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위에서는 兩 宰相의 거처였던 環碧堂과 拜鵲窩의 퇴락과, 이들을 黜斥하여 득세한 후 朱門甲第로 거리를 채웠던 동인들의 위세를 대비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은 體素 李春英과 五山 車天輅의 懷才不遇한 생애와 翰苑, 玉堂의 英豪學士를 대비시키고 있다. 書淫이라 할만한 박식과 司馬相如를 능가할 만한 재기로도 體素는 不歸의客이 되었고 五山은 路傍을 떠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사극치를 뽐내는 한원, 옥당의 재주꾼들은 굳이 陳編을 붙잡고 애쓸 것도 없이 운새만 통하는 길목만을 지켜도 관작을

40) 〈君不見對酒走筆〉, 《石洲集》 卷之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석주는 청직한 정승이 영락하고 뛰어난 재사가 방외로 전진하는 정치 현실을 ‘榮悴貴賤이 어찌 하늘에 있겠는가’ 하고 비감한 결론으로 이끌고 있다. 정치적 공의가 실종된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 뒤틀린 심사를 냉소적으로 발설한 것이다.

幽居所居屋 깊숙이 기하는 집은
繞屋多古木 많은 고목으로 둘러다.
有鳥半夜鳴 밤새워 우는 새가 있어
聲如小兒哭 소리가 아이 울음같다.
其名曰訓狐 이름하여 訓狐(올빼미)라 하였으니
鳴則主人厄 울면 주인에게 액운이 따른다.
主人語訓狐 주인이 훈호에게 말하기를
爾聲雖甚毒 너 우는 소리는 비록 독하다 하나
舉世皆爾曹 세상이 다 너와 같은 무리이니
不祥爾豈毒 너만 어찌 홀로 불길할까
呢呖弄巧舌 아첨하고 비방하는 요사한 혀를 놀리어
腸肚張奸目 이리 보고 저리 보며 간사한 눈을 굴린다.
對面說機阱 얼굴을 대할 때도 함정을 두고 있어
陷人動不測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헤아릴 수 없다.
以爾比世人 너로써 세상사람에 비유하니
焉知不爲福 어찌 복되지 않겠는가⁴¹⁾

訓狐에게 주인이 말하는 형식을 빌어 작자의 의도를 寓意한 시이다. 훈호는 鵩鳥, 혹은 鵩로 불리워지는 새로 올빼미를 가리키며, 人家에 날아들면 주인이 죽는다는 俗信이 있다고 했다고 했다.⁴²⁾ 韓愈도 그의

41) 〈夜坐醉甚走筆成章三首〉中 其三, 《石洲集》 卷之一

42) 鄭珉, 〈石洲翁자시의 구조와 주제〉, 《漢陽語文研究》 第8輯 (漢陽語文研究會, 1990), p. 187

〈射訓狐詩〉에 ‘有鳥夜飛名訓狐 矜兇挾誇自呼’라 하여 밤에 우는 새로 뽕鳥임을 나타내고 있다.⁴³⁾

여기서 훈호에 대한 속설에 비겨 거의 直敍法(賦)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9句의 ‘舉世’는 巧舌과 奸目으로 끝없이 정쟁을 벌였던 상층관료사회를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學緣, 地緣, 門閥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結黨으로 그 모순을 심각하게 노정하고 있었던 권력상부의 실상이 주인의 입을 통해 제시되었다. 석주는 동, 서인의 대립에서 빚어진 선비들의 遠竄, 賜死와 같은 정치보복의 악순환과, 이후 남, 북인의 대립, 또 소북, 대북의 반목을 흥조인 올빼미의 독설보다도 더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의 시는 문집에는 없고 尹國馨의 〈甲辰漫錄〉에만 실려 있다.

假令科第用私情 科第에 私情을 사용하였다면
子弟之中任最輕 자제 중에 조카가 제일 가볍다..
獨使許筠當此罪 許筠만이 홀로 이 죄 당하였으니
世間公道信難行 세간의 공도 실로 행키 어렵도다.⁴⁴⁾

이 시가 문집에 전하지 않는 이유는 李植의 표현되로 ‘譏刺已甚’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인물을 변호하는 데 대한 문집편찬자의 거부감 때문이었는지, 혹은 興이나 比法에 부치지 않고 직설한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상황에 대한 독설이 기침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종류의 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庚戌年(1610) 겨울 文科殿試가 베풀어졌을 때 發策讀券官으로 左相 李恒福이 되고 參試官으로 許筠과 몇몇 다른 자가 참여하였다. 이 때 參榜者 중에는 허균의兄 許篈의 아들 許畬와 사위 朴弘道가 있었고 나

43) 中華學術院, 《中文大辭典》v. 14, 中華民國 74, p. 897

44) 尹國馨, 〈甲辰漫錄〉, 《대동야승》(민족문화추진회, 1989), p. 111

른 참서관인 朴承宗의 아들 自興, 또 李爾瞻의 查頓 李昌後, 承旨 倬의 아우 曹估, 그리고 許筠家와 가까웠던 卞獻 등이 끼어 있었다. 조정 밖에서 허균이 許, 朴, 卞에게 私情을 두었다고 지목하여 의론이 분분하여 ‘子婿弟侄查頓’의 과거라고 비난하였다. 물의가 크게 일자 左相이 啓를 올려 待罪하였으나 결국 허균만이 刑을 받고 귀양갔고 허보와 변헌은 削科되었다.⁴⁶⁾

석주가 1, 2구에서 말한 것은 筠이 조카 허보에게 私情을 두었다면 아들, 사돈, 아우들에게 미친 사정보다는 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균만 治罪했다는 불만이다. 4구에서는 공의로와야 할 국가권력이 權臣들에 의해 임의로 조작되고 있는 상황을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① 隴鳥何翩翩 언덕 위의 새가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東來入紫宮 동쪽 궁성에 들었다.

君王顧之笑 임금님이 그를 보고 웃으시며

貯以金絲籠 금실로 짠 새장 속에 가두었다.

宵眠曲攬靜 밤에는 굵은 난간 위에서 조용히 자고

45) 광해군이 즉위한 후 대북, 소북과의 쟁투 속에서 獄事가 일어나 臨海君과 白仁傑이 모역죄로 죽음을 당하였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시가 《燃藜室記述》에 실려 있어, 석주가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을 소재로 譏刺한 작품이 많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實錄》에서도 ‘스스로 성벽이 강하고 말이 겹싸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힘써 숨으려고 하였다. 시를 지어 詩人을 譏諷하는 것을 즐겼으니 每一篇이 나오면 온 장안이 시끄러이 외워 전하니 이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많아져 마침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들 했다.(自以性剛口快 深懼禍及 務欲蹈藏 顧好作詩 譏諷時人 每一篇出 都下喧然傳誦 由是不悅者衆 卒不免於禍云)’고 기록하고 있다. (〈光海君日記〉四年 壬子條) 《언려실기술》 소재의 시는 다음과 같다.

乙巳年 일은 다시 어려웠으니 / 천고에 두 학사 이름 남기고 / 황천에서 일 왕손이 통한을 삼키도다 / 시비는 엄혀 있어 판단키 어렵고 / 毀譽는 분분하여 논할 수 없네 / 어찌 하던 長風이 어둠을 걷어 내고 / 높이 뜬 일월이 천지를 비추게 할꼬 (乙巳年間事更屯 千古留名兩學士 九原含痛一王孫 是非褒貶終難定 毀譽紛紛未易論 安得長風掃陰翳 高懸日月照乾坤)

46) 尹國馨, 위의 책, p.110~111

晝啄香稻豐 낮에는 향기로운 벼씨를 넉넉히 먹었다.
 紅嘴語朝日 아침이면 붉은 부리로 지저귀며
 綠羽搖春風 봄바람에 푸른 나래 펼럭인다.
 一朝柏梁火 하루 아침에 栢梁臺에 화재나서
 委質灰燼中 불꽃 속에 간혀버렸다.
 人皆羨其始 사람들은 모두 그 처음을 부러워하나
 我獨悲其終 나는 그 마침을 슬퍼한다.
 豈若故山侶 차라리 옛날 동산과 짝이 되어
 孤鳴松桂叢 홀로 松桂 우거진 숲에서 울고나 있을 것을⁴⁷⁾

- ② 誰投與狗骨 누가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 주었나
 群狗鬭方狼 여러 개들이 야단스레 싸운다.
 小者必死大者傷 작은 놈은 반드시 죽고 큰놈은 상처 입으니
 有盜窺瘤竈欲乘釁 도적이 그 틈을 보고 있다.
 主人抱膝中夜泣 주인은 무릎 싸안고 밤중에 우니
 天雨牆環百憂集 비가와서 담이 무너져 여러 근심모이네⁴⁸⁾

위의 두 시는 寓話詩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준다. ①의 시는 숲 속을 떠난 새가 궁중에 들어 임금의 총애를 받지마는 화재가 나서 타 죽는다는 서사적 기술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내용은 漢 武帝 때 栢梁臺故事를 引喻(allusion)했다. 백량대는 한 무제가 일으킨 것으로 들보로서 香柏나무를 쓴 데서 이름 하였다. 무제가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七言詩를 짓게 하여 그 지은 자를 대에 오르게 하여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太初年間에 화재로 불탔는데 文 宴의 풍성함과 그 몰락의 무상함을 비유하는 데 이 고사가 주로 인용된다.

47) 〈古意八首〉中 其一, 《石洲集》 卷之一

48) 〈鬭狗行〉, 《石洲集》 卷之二

여기서 比喩詞인 補助觀念으로 쓰인 사물들이 지칭하는 元觀念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紫宮이라 표현했으나 그 공간적 배경은 조선조의 조정이다. 금실로 짠 새장에 든 것은 임금의 총아를 받아 중앙의 관직에 오른 것이다. 향기로운 법씨는 祿으로 받는 풍성한 재물일 것이고 '語朝日', '搖春風'은 그 직위로 인한 위세와 호사를 나타내 준다. 그렇다면 화재는 불시에 불어닥친 정치적 소용돌이일 것이다.

'人皆羨其始 我獨悲其終'은 궁중에 든 새에 비겨 정치현장에서의 무상한 운명을 작가의 개입으로 포괄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순한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浮沈이 무성했던 變化難測한 정치무대를 적절히 표현해 내고 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②의 시는 鄭弘溟이〈畸庵漫筆〉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大北派와 小北派의 정투를 풍자한 것이다.⁴⁹⁾ 宣祖의 승하를 전후하여 동인에서 나누어진 북인이 永昌大君을 중심으로 한 소북파와 光海君을 중심으로한 대북파로 분당되어 泥田狗鬪의 양상을 연출하였다. 석주가 이들을 싸잡아 群狗로 표현한 것에서 이들의 행위를 보는 냉소적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比法으로 처리된 의미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 개소북파
큰개대북파
뼈다귀파당의 이익
주인왕
도적외적
담국경, 사작⁵⁰⁾

파당을 지어 정치적 실권 확대에만 연연하여 싸운다는 것은 國利民福

49) 鄭弘溟, 〈畸庵漫筆〉《松江全集》附錄二(影印本 成均館大學)

50) 이같은 의미구조의 분석은 오세옥씨가 이미 같은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오세옥, 권필 문학에 나타난 갈등극복의 구조, 연세대 대학원, 1983, p. 54)

을 힘써야 할 高官들의 도리가 아니다. 더구나 그 싸움은 개들이 서로 상처를 입듯이, 어느 一方의 승리와 他方의 패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쌍방에 모두 심각한 상처를 안겨줌으로써 국력을 소진시키게 된다. 이런 틈을 노렸던 왜국의 침략으로 이미 7년의 전쟁을 겪었고 다시 점차 강대해져 가고 있는 後金이 북쪽 변방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조정대신들은 파당을 지어 목전의 이익만을 다투고 있었다. 왕은 파당 사이에서 대신들의 눈치만 살피기 바쁘니 위태로운 社稷을 두고도 어찌할 바가 없는 것이다.

위의 두 번째 시의 作意는 壬亂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朝廷腐儒들의 失政에 기인한다는 태도에 닿아 있다. 석주의 글에는 침략의 당사자인 倭賊에 대한 적대의식을 구체화시킨 작품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석주가 임란의 원인을 국내의 정치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한 데에 이유를 둘 수도 있겠다. 이 점은 그의〈重峯先生封事後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은 重峯 趙憲이 宣祖에게 올린 封事を 보고 지은 것이다. 석주는 여기서 중봉이 왜적의 흥패지도를 짐작하고 방어의 계책을 세우고자 할 때, 당대의 관리들이 미친 자로 치부한데 대해 강한 논조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 즉 지금의 원수된 자가 과연 소인이겠습니까 그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과연 군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고인이 말한 소위 陰陽의 위치가 바뀌고 方正이 거꾸로 선 것입니까. 진실로 위 사람으로 하여금 선생의 덕을 보게 하여 문득 깨달아 그 원수된 자를 중히 하고 중하게 여기는 자를 원수로 여긴다면 頑雲이 풀리고 天日이 맑아질 것입니다.

(…然則 今世之所仇者 果爲小人耶 其所重者 果爲君子耶 抑古人所謂陰陽易位方正倒植者耶 誠使爲人上者 得先生之書 惕然覺悟 以重其所仇而仇其所重者 則頑雲解而天日明矣 悲夫悲夫)⁵¹⁾

51) 〈重峯先生封事後跋〉, 《石洲別集》 卷之二

聖聰을 가려 정세판단을 그르치고 결과적으로 임란을 초래한 朝廷當路者를 원수로 여겨 통박하는 내용이다. 賢臣勇將을 출척하고 悖德한 무리가 작당하여 정사를 左之右之한 실정을 天日과 頑雲에 비겨 논하였다. 석주의 이런 태도는 다음 金德齡에 부친 시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가 있다. 비록 정치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主旨는 위의 글과 상통하는 것이다.

將軍昔日把金戈 장군은 옛날에 빛나는 창을 잡았으나
壯志中摧奈何 장한 뜻 중도에 꺾기니 운명을 어이하라
地下英靈無限恨 지하의 영령은 무한한 한을 품으니
分明一曲醉時歌 한 곡조 취시가는 분명하도다.⁵²⁾

김덕령은 임란 중에 義兵將으로 全州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李夢鶴과 더불어 逆謀를 꾀했다는 誣告를 당하여 옥중에서 죽었다. 아직 伸冤도 받지 못한 김덕령의 죽음을 애도한 것만 보아도⁵³⁾ 정사를 그르친 조정대신들에 대한 반발의식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주의 사회시에는 당대의 정치현실을 직설적으로, 또는 비유적 방법으로 표현하면서도 그로 인한 역사적 역기능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다음 백성들의 궁핍한 실상을 이해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52) 이 시를 지은 동기에 대해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附記되어 있다. '夢得一小冊 乃金德齡詩集也 其首一篇 曰醉時歌 余三復得之 其詞曰…既覺然 悲之 爲作一絕' (《石洲集》 卷之七).

53) 김덕령은 歿한지 65년 후인 1661년 (顯宗二年)에 沈之源 등의 상소에 의하여 伸冤되었다. (金忠壯公遺事篇纂會, 《金忠壯公遺事》, 全南日報社) 1979 參照

IV. 百姓의 實狀과 愛民意識

朝鮮朝 정권담당층은 王道政治 실현을 위하여 民本主義的 重農政策을 폈다. 초기에 실시된 科田法은 농민들에게 농토의 경작권을 인정하여 이들을 보호 육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土着地主의 土地兼併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 취지는 무너지고 대안책으로 나온 職田法마저 실패하게 되었다. 농민은 이에 따라 소작으로 전락했고 뒤이은 戰亂으로 경작지마저 줄어들게 되자 流亡者들이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상층지배층은 권력쟁투로 寧日이 없었고 民生은 오히려 뒷전이었다. 전란 후 封建政府의 여러 試案도 미봉책에 불과했고 궁핍해진 재정확충을 위하여 徵收는 더욱 확대되어 농민의 물락을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석주의 基層民衆에 대한 이해는 상층관료사회에 대한 시각과 관련성을 가진다. 즉 그는 하층민을 訓民과 教導의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백성의 궁핍을 상층사회의 諸矛盾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했다. 다음의 시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석주의 태도를 살필 수 있다.

戚里多新貴 외척들 중에는 새로 귀하게 된 자 많아
朱門擁紫微 붉은 칠한 문들이 궁성을 둘렀네
歌鍾事遊燕 노래하고 연주하며 잔치만 일삼고
裘馬鬬輕肥 갖옷은 가벼운 것, 말은 살찐 것만 다룬다.
祇可論榮辱 단지 영욕만을 논하고
無勞問是非 수고로히 시비를 묻지 않는다.
豈知蓬室底 어찌 가난한 집 아래
寒夜泣牛衣 추운 밤 쇠덕석 쓰고서 울고 있음을 알겠는가.⁵⁴⁾

권력층의 豪奢와 백성의 궁핍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욕만을 논하는 戚臣들에게는 백성의 고충이 눈에 보일리가 없다. 쭉대집 아래 寒氣를 떨치지 못하고 신음하는 형상은 전체 백성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상층지배층이 백성이 情狀을 제대로 파악하여 救民策을 때에 맞춰 세운다면 경제적 궁핍이 怨望으로 응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是非밖의 일인 양 자신의 안일과 호사에만 관심이 있다면 백성들은 시름에 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석주의 시각은 정치철학적 對民意識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愛民精神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다음도 역시 위와 비슷한 성격의 시이다.

驅車兒	수레꾼!
三十四猶總角	나이는 3, 40이나 여전히 총각
有盧不居田不耕	움막에도 거할 수 없고 밭도 갈지 못하고
年年伐木在山谷	해마다 나무 베느라 산곡에 있네
借間伐木何所用	묻거니, 나무 베어서 무엇에 쓰련가
長安城中起樓閣	장안 성중에 누각을 세운다네
樓閣連雲山木盡	누각은 구름처럼 연이어 산의 재목 바닥나고
官家催促無虛日	관가에서 재촉 쉴 날이 없다오.
城南昨夜飛雨滑	성남은 어젯밤 비가 와서 미끄러워
陌上春泥深沒膝	언덕 위 눈녹은 진흙에 무릎이 빠져
竟日十步五步間	하루종일 열걸음 다섯 걸음하니
牛飢無草兒不食	소 주리나 풀이 없고 수레꾼도 먹을 것이 없네
兒不食尚可	수레꾼은 먹지 못해도 좋으나
牛飢恐失足	소가 주리면 실족할까 염려한다.
驅車兒	수레꾼!

54) 〈詠史〉, 《石洲集》 卷之三

兒有辭 그 사람이 할말 있네
 傍人間之亦悽測 주위사람 그것을 묻고는 또한 슬퍼한다.
 兒驅牛 수레꾼은 소를 끌고
 牛驅車 소는 수레를 끈다.
 牛蹄躑躅車轆轤 소는 터벅터벅, 수레는 탈경탈경
 轆轤躑躅十餘歲 탈경탈경 터벅터벅 십여년
 兒身無子牛無犢 수레꾼은 아이없고 소도 송아지 없네.
 一朝牛斃兒亦死 하루 아침에 소 죽고 수레꾼 또한 죽으먼
 官家何處施鞭朴 관가는 어디에 채찍을 휘두를꼬
 願將此意叫天聞 원컨대 이 뜻을 궁성에 아뢰어서
 及時下令除苦役 때맞춰 영을 내려 고역을 면케 하소서
 兒但與牛相對眠 아이는 단지 소와 마주 졸고 있으니
 日長村巷桑麻綠 해는 시골에 높이 뜨고 삼대만 푸르다.⁵⁵⁾

‘兒時作’이라 附題한 이 시는 벌목꾼이 牛車를 끌며 애쓰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시 속에는 提喻法으로 처리된 사회구성의 계층이 세부류로 나타난다. 하나는 구름처럼 연이은 長安城中的 高樓臣閣으로 표현된 高官大爵의 上層支配階層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에 아첨하여 재물을 충당해 주는 不級官廳의 官吏이며, 나머지는 소와 수레꾼으로 대변되는 일반백성이다. 樓閣은 酒宴이나 필요한 구조물이니, 兼善의 德化를 베풀어야 할 상층관리들이 風流宴樂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급관리들 역시 牧民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온갖 아침과 뇌물 공세로 상관의 눈에 들기만을 노력하니 자연히 백성의 膏血을 짜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官家の 성화에 놀려 일상적인 삶도 구려가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작품은 ‘願將此意叫天聞 及時下令除苦役’으로 結尾가 처리됨으로써 작가의 개입이 생경하게

55) 〈驅車兒〉, 《石洲集》 卷之二

드러나는 習作期的 미숙함을 보였지만, 석주의 愛民意識을 문학적 표현수단을 통하여 적절히 나타난 秀作이라 하겠다.

布穀布穀 ㅼㅅ ㅼㅅ (ㅼㅅ ㅼㅅ려라! ㅼㅅ ㅼㅅ려라!)
 布穀聲中春意足 ㅼㅅ이 소리 中에 봄은 깊었으나
 健兒南征村巷空 장정은 전쟁나가 마을이 비었고
 落日唯聞寡妻哭 떨어지는 해 속에는 과부의 곡성이 들린다.
 布穀啼誰布穀 ㅼㅅ이는 울지만 누가 ㅼㅅ뿌릴 것인가.
 田園茫茫烟草綠 전원은 아득하니 잡풀만 푸르도다.⁵⁶⁾

‘布穀’은 그 의미대로 ‘ㅼㅅ ㅼㅅ려라’ 라는 뜻과 音價로서의 ㅼㅅ이 울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ㅼㅅ이는 春耕期에 운다. 그래서 그 울음은 겨울을 난 후 굳은 밭을 일구고 ㅼㅅ를 ㅼㅅ려라는 소리로 들리게 된다. 그러나 ㅼㅅ를 ㅼㅅ려라고 독촉하는 듯한 ㅼㅅ이 울음소리에도 ㅼㅅ를 ㅼㅅ릴 수 없다. 壯丁은 전쟁에 징발되어 가 죽고 과부만 남아 온 마을이 텅 비었는데 누가 ㅼㅅ뿌릴 것인가 하는 물음이 6句에 이어진다. 전원의 푸르름이 청각적 이미지로, ㅼㅅ이의 울음소리는 시각적 이미지로 興法으로 처리되어 후구에 표현된 전쟁의 잔해를 실감있게 전달해 주고 있다. 즉 戰場後方의 퇴락한 촌락과 과부의 곡성이 여기에 조응되고 있다.

江上孤村水色寒 江上. 외딴 마을 水色은 차가운데
 平林落照見鴉還 수풀 속 落照에 갈까마귀 날아가네
 身仍病後開門少 몸이 병든 후라 문 열 일도 드물고
 詩欲成時不字難 詩想은 떠오르나 쓰기가 어려웨라.
 千里旅遊生白髮 천리 나그네길 흰머리 나는데
 二年鄉國隔青山 2년 동안이나 고향청산을 못보누나

56) 〈四禽言〉中 其四 ‘布穀’, 《石洲集》 卷之八

只今民社堪垂淚 지금은 온 백성이 눈물을 건디니
何日朝廷起謝安 어느날에 조정은 謝安을 기용할꼬⁵⁷⁾

首聯은 역시 後句에 앞선 興이다. 서로 직접적 연상관계 속에 설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외딴 마을 落照에 날아가는 갈가마귀가 자신의 외로움을 환기시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尾聯에서는 전쟁을 겪는 백성의 질고와 조정에 謝安⁵⁸⁾과 같은 덕망가가 없음을 개탄한 것이다. 首聯의 興이 개인적 정서로 착색되고 다시 사회적 현실문제로 상승, 확대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련의 강한 비판의식이 前句의 흥으로 해서 생경한 자기주장으로 불거지지 않고 절제되고 여과된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⁵⁹⁾

다음의 시는 전란 후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시각과 그 애민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로서, 端川郡守로 除授받아 出行하는 李安訥에 부친 것이다.

.....

聖朝經喪亂 나라가 전쟁을 겪어
憂虞方未畢 상처 아직 아물지도 않았네
蔡元困征賊 적과 싸우기에 백성은 지쳐
愁痛未忍說 슬픔을 차마 이야기할 수 없도다.
官吏恤供給 관리들은 이들을 먹여 주겠다 하나
割剝到膏血 할퀴고 뺏어 고혈을 짜는구나

57) 〈列李子敏〉再用前韻, 《石洲集》 卷之四

58) 謝安은 後漢 때의 사람으로 順帝末에 揚州, 徐州 등지에서 도적이 일으켰을 때 宗親을 이끌고 가서 격퇴하여 平鄉侯로 封해졌다.

59) 李敏弘교수는 석주가 임진란의 실상을 興에 의탁해서 읊었기 때문에 걱정과 분노가 객관화되어 감동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였다. 이 시와 관련지어 볼 때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李敏弘, 〈石洲詩의 品格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第9·10合輯, 韓國漢文學研究會, 1991, p. 25)

向來百家村 여태껏 100호의 마을이
 所存無十室 남아 있는 집 10호도 못되누나
 慎物踵前跡 삼가하여 지난 자취 따르지 말고
 務在蘇疲茶 곤궁한 백성 소생시키기에 힘쓰시오
 用刑戒酷吏 포악한 관리를 문책하는 데에 형벌을 쓰고
 推恕法先哲 용서하는 데에는 옛 선현 본받으라.
 行令潤瘼民 마르고 병든 백성들로 하여금
 再見昇平日 다시 평화롭게 살게 할지라.⁶⁰⁾

.....

V. 結 論

이상의 論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傳統的 修辭技巧인 比·興에 대한 石洲의 인식태도를 《實錄》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比와 興은 서로 구분이 분명치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比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작품 내에서 실현되지 않고 잠복되어 있는 데 반해, 興은 下句 즉 작품 내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석주의 〈宮柳詩〉는 比法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물론 석주 스스로는 이것을 興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판단한다면, 석주는 비와 흥에 대한 수사적 기교와 그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사회적 현실을 그려내려는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비법을 넓은 의미의 寓意로 보았을 때 석주의 사회시에는 이 우의적 표현기법이 두드러진다. 그 활용의 양상은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寓話이고 다른 하나는 引喻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60) 〈送李子敏(安訥)出守靖川〉, 《石洲集》卷之一

이야기형태의 談話樣式을 택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石洲 社會詩에 운용된 문학수사로서 아이러니의 기법도 주목할만 하다. 아이러니는 말해진 것과 의미된 것 사이의 緊張과 相衡의 효과를 노리는 수사법이다. 석주는 이 아이러니를 통하여 현실의 모순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2. 석주가 政治現實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시를 살펴보았다. 私緣에 매여 公義를 몰각한 朝廷當路者의 失政을 통매하는 一方, 재능있는 文士가 路傍으로 표박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 王亂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朝廷腐儒들의 失政에 기인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의 시적 표현도 이 부류의 시에서 두루 찾을 수 있다.

3. 석주의 基層民衆에 대한 이해는 上層官僚社會에 대한 시각과 관련성을 가진다. 그는 하층민을 訓民과 教導의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백성의 궁핍을 상층사회 諸矛盾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서 이를 시로써 표현해 내고 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질고를 안타까와 하는 愛民精神이 자리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